

제사문제로 갈등이 많습니다

Q) 저의 친정 아버지께서는 삼 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의 맏아들로서 권사이신 어머니와 제사대마다 절하는 문제, 제수 마련 등으로 의견충돌이 생깁니다. 집사인 저로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보아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

A) 부모님의 조상을 기리며 생각하는 마음만은 칭찬할 만합니다. 요즘처럼 어른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심한 시대에 조상의 공을 추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사실 제례식 제사 방법은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우리의 고유 풍습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우리의 풍습인양 따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기독교적인 방법을 따르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집사와 권사라는 교회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중국식 유교 방법을 고집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기독교 신앙에도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철저히 기독교화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추모예배나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둘은 표현상 두 개의 다른 단어일 뿐이고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제사는 음식을 놓고 술을 따르고 절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상의 혼이 떠돌아다니다가 자손의 대접을 받으러 온다는 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액운이 찾아온다는 공포심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삿날과 같은 날을 택해서 영원히 떠나신 부모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리며 추모하면 됩니다. 또한 음식도 마련해서 부모님의 자손인 우리들이 우에 있게 나누면 됩니다. 혼이 와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면 제일 좋고 아니면 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가족이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기원, 찬송, 기도, 성경봉독(엡 6:1-4, 계 21:1-7, 잠 3:1-10, 눅 16:19-31 등에서 적당한 것 선택), 말씀, 기도, 찬송, 주기도문으로 하면 됩니다.

좋은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들의 교훈을 기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한국식이고 추모 예배는 외국식이다'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식을 택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성경과 기독교 문화에 적합합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부모를 추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99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1권1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1999년10월 24일	
☎262-3717/021-292-1639, ☐229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갈보리는 없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갈보리 언덕이라기에 확인키 위해 신약성경을 다 읽어보아도 찾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Gordon 이라는 사람이 라틴어 Calva(해골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Calvary란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 곳을 골고다 혹은 성문 밖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 문 안에서 있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성 밖에 저렇게 많은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성 안에 머물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문 밖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처럼 문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 움직이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갈보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잘 보이는 곳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요 19:20). 우리는 감추어진 hidden cross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보여야 할 Living Cross입니다. 우리를 통해 성문 밖의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하라고 우리를 성 문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문 밖에서 그 진가를 더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갈보리교회로 새 이름을 갖는 오늘, 교회 밖의 우리 가정이 그리고 오를랜드가 다 성문 밖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시다.

서울의 갈보리 교회 박조준 목사님께서 금요일 저녁, 미주 집회에서 귀국하시자마자 우리 갈보리 교회 새 이름을 지은 소식을 듣고 축하의 글을 FAX로 보내주셨습니다.

"갈보리교회의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피곤한 이민생활에서 영혼의 안식처로
방황하는 심령에게 영혼의 등대로
간구하는 심령에게 응답의 진(駿)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창립 100일 감사예배)

주일예배

오후 1:30

다 같이

인도자

다 같이

다 같이

송정섭 집사

살림합창단

아동부

김성국 목사

집례자

집례자

다 같이

인도자

다 같이

인도자

김성국 목사

영광송
Gloria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찬송
Hymn

248 장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54(성례식)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246 장

기도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0:25-37

찬양
Praising

주일학교
Sunday School

설교
Sermon

'자원함과 익명성'

설교후 기도
Prayer

성찬찬송
권편과 성경봉독

144장

고전 11:23-29

기도
분별

감사기도
찬송

493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헌금기도
Offertory Prayer

*응답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위탁의 말씀

*축도
Benediction

'99년도 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실천사항>
*신 양: 기초성경공부이수
*주일예배: 정장으로 예배참석
*생활: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하지도 맙시다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소식

오늘부터 우리교회 이름이 City 한인교회에서 "갈보리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 모든 지침과 내규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교회명: "갈보리 교회"

*교회주제가: "Calvary 슬픔걱정 가득 차고"

*예배시작부분에서 약간의 예배순서 변동이 있습니다.

1. 100일 맞이 감사기념예배와 성찬주일

오늘은 우리교회가 100일을 맞아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창립 100주년기념
예배장면을 그려보며 100일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예배에 찬양해 주신 '살림합창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창립 100일(선교)

*ooo School의 점심 결식 어린이 지원(11월부터 실시)

3. 이번주는 "마태의 주간" 들찌주간(마지막 주간)입니다.

1일 2장씩 마태복음을 2주간 동안 읽기를 금주간까지 진행합니다.
(성경읽기 계획표를 사용하십시오)

4. 수요일예배를 저녁 7:30에 교회에서 드립니다(레위기 강해)

*기도제목: 수요일예배를 위한 교회사용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5. 금주 구역예배는 모임이 없습니다.-구역예배 격주 모임

6. 연합부흥회(임마누엘 교회, 주님의 교회)

많은 참여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와 장소:

29일(금) 7:30pm 주님의 교회

30일(토) 7:30pm 임마누엘 교회

7. 목회자 동정

지난주간에 예정된 사모안교회 Iacopo목사와 윌레희의를 27일(수)에 갖습니다.

8. 11월부터 금요구역예배에 "은사론"에 관한 10주 성경공부를 진행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은사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0 (성경공부용 file)

9. 기도제목

1) 예배반주자(피아노, 율겐, 현악, 관악)

2) 아동부 교사

10. 예고: 다음주일 예배 후 교우회의